

## 광주시 승인 구도심 재개발 22곳

# 초고층 아파트만 빼빼

### 최고 39층…기형적 도시구조 우려

광주시가 승인해 준 구도심 일대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 구역들이 최고 39층에 달하는 초고층 아파트로 숲으로 계획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광주시 북구 북동구역의 경우 최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최고 63층의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안을 제시하는 등 이를 구역의 '높이 경쟁'은 가속될 전망이다. 63층은 광주 최고층 건물인 금호생명빌딩 31층의 2배를 넘는다. <관련 기사 3면>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시가 승인,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22개 주택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 구역의 공동주택 층수는 15~39층에 달한다.

이들 사업지역 가운데 최고층수 ▲ 20층 미만은 2곳▲20~25층 10곳▲ 26~29층 2곳▲ 30~35층 5곳▲ 36~39층 3곳으로, 20층 이상이 전체

의 90.9%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광주시내 아파트 최고층수인 26층 이상도 45.5%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동구 계립 8구역에 최고 34층, 서구 화정주공 구역은 최고 30층, 동구 계립 3구역·북구 누문구역·북구 임동 아세아극장 일대 임동구역 등에는 최고 39층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이처럼 초고층 아파트가 구도심 재개발 지역들에 몰리게 된 것은 광주시가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이 일대 상업지역을 과도하게 지정,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주거단지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비롯됐다. 법대로라면, 최고 650%의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가능 학제면적의 비율)이 적용돼,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 입장에선 너도나도 초고층 아파트를 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오늘·내일 후보 등록…2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 6·2 지방선거 D-20

6·2 지방선거가 13일과 14일 이틀 간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간다. 공식 선거운동은 20일부터 시작되지만 그에 앞서 초반 기

선을 잡기 위한 신경전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4·5면>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정용화 광주시장 후보와 김대식 전남지사 후보는 13일 오전 후보자 등록을 한 뒤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당 공천자인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도 이날 오전 후보 등록을 한 뒤 오후에는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광주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표회를 갖는다.

박준영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이날 오전 대리인을 통해 후보등록을 하고, 화순을 방문해 지역 유권자 접촉에 나설 예정이다. 박 후보는 또 오는 19일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전남 22개 시장·군수 후보들과 함께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세 확산에 나선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본인 부담을 줄이려고, 건설업체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갈수록 아파트 높이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법적으로 가능한 증수로, 그나마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낮게 조정하고 있는 것이 이 정도"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도심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기형적인 도시구조가 되고, 무등산 조망 등 전반적인 도시 경관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도시

계획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 도시 내 주거지 이동을 심화시켜 미개발지역의 쇠락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도시를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 이미지로 전락하게 하는 것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이제 도심 건물에 대한 적절한 높이 규제, 과도한 상업지역의 하향조정, 구도심 주택·상업지역에 대한 공공개발 등이 눈의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식품관리구멍

광주·전남지역 식품안전 검사 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에 유통중인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하면서 정작 유통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농약 성분은 검사 항목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일정 시기마다 검사해야 하는 항목을 빼놓거나 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시스템의 종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을 수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이나 살포량이 많은 농약을 포함해 고독성 농약, 과거 검출이력이 있는 농약 등을 검사 항목에 제외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만코제브(Mancozeb)'의 경우 국립농업과학원이 지난 2005년~2008

년까지 '작물별 주요사용농약'에 대한 연구조사를 거쳐 노지 고추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유통·살포량이 많은 농약으로 조사됐지만 아예 검사 항목에서 제외됐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또 일선 시·군이 일반세균·황색포도상구균 등의 검출 여부를 의뢰한 식품에 대해 시험도 하지 않고 허위로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도 화학식이 유사해 동시 분석이 가능한 일부 농약 성분만 검사 항목으로 임의선정 해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시와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밖에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로 반드시 검사 항목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과거 검출이력이 있는 농약'에 대해서도 검사 항목에서 제외시켜 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컨테이너에 핀 '5월의 꽃'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아시아문화전당의 쇼케이스 공간인 '아시아문화마루·콘스트랄레광주'가 12일 오후 동구 아시아문화전당 부지 앞에서 국제현대미술제 '5월의 꽃'을 주제로 한 프레오픈을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

## 농약검사 빠진 '잔류농약 검사'

알림



### 제19회 光日盃

### 광주·전남 직장 바둑대회

- 일 시 : 2010년 5월 30일(일) 오전 10시
- 장 소 : 한국기원 광주지원(광주시 주월동 국제호텔 건너편 3층)
- 참가자격 : 광주·전남지역 근무 직장인
- 팀 구성 : 단체전=1팀 3명(주장·부장·삼장)  
한 직장에서 각 팀 참가 가능  
개인전=각 팀에서 1명
- 참가신청 : 5월 28일(금) 오후 5시까지  
한국기원 광주지원 062-675-3448  
광주일보 문화홍보국 062-220-0541
- 참가비 : 1팀당 3만원(개인전 포함)
- 시 상 : 단체 및 개인별 우승, 준우승, 3위  
입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 수여
- 시상식 : 6월 4일(금) 오전 10시 30분 광주일보 16층

주최: 光州日報社 후원: 광주시바둑협회